

# 精氣神의 입장에서 살펴본 생명윤리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한의학 연구소

## Study on Bioethic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Material Basis & Vital and Mental Activities

Gyeong 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Following are the view points from the Bioethics on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material basis & vital and mental activities (精氣神); the whole idenity of the human is observed both materially and morally. The questions of the start and origination on the human life are the principal subject on the bioethics, and therefore the opinions on the bioethics on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material basis & vital and mental activities (精氣神) persist that the start and origination on the human life is the time of fertilization. The social issues as the abortion and suicide must judged basically on the bioethics on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material basis & vital and mental activities (精氣神).

Key words : Bioethics, the theory of material basis & vital and mental activities (精氣神)

### 서 론

요즘 자살, 낙태 등의 생명 경시 풍조의 증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최첨단 의과학의 발전은 인권의식이 발달된 문명권을 중심으로 인간 배아복제, 장기이식, 안락사, 인공유산 등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재삼 환기시키고 있다<sup>1)</sup>. 이제 생명윤리는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더욱 필요하며,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여러가지 기본 자세를 제시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다. 생명과학, 의과학 등의 발전 속에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예를 들어 산전 유전자 검사와 치료, 체세포 핵 치환을 통한 인간(배아)복제, 배아의 발생 과정을 차단 하면서 진행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말기 환자의 생명 유지 등등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의학적, 과학적, 기술적 개입 및 조작 가능성이 크게 증대하였다<sup>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기술들은 인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일적인 인간 생명학과 단절되면서,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 전체

를 보지 않고, 부분적인 생명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서 외적인 측정 가능한 생명현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명현상의 어떤 부분을 해명해주기도 하고 많은 유익성과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인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연구 성과들이 하나의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의과학 및 생명과학은 인간의 전체를 파악하고 정초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생명 중심의 전일적인 인간 생명의 학문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의학의 精氣神論은 인간의 전일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구성요소적인 관찰 내용으로써, 인간 생명과 관련된 생명 윤리를 규정하여 인간의 전일적인 실체적 통일성과 인간 생명의 기본가치에 대하여 설명 가능하게 한다. 이에 저자는 精氣神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생명윤리 내용에 대하여 '생명 윤리에 精氣神論의인 인간 생명학이 요청되는 이유'와 精氣神論의인 인간 이해' 그리고 '精氣神論의인 입장에서 생명윤리에 주는 시사점'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 본 론

#### 1. 생명윤리와 인간 생명

생명윤리(Bioethics)라는 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종양학자였던 포터(V. R. Potter)가 1970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3-850-8649

· 접수 : 2005/04/01 · 수정 : 2005/04/28 · 채택 : 2005/05/22

다. 그는 생명윤리학을 “생물학의 지식과 인간의 가치 체계에 관한 지식을 결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정의하였다<sup>23</sup>). 즉 생명윤리는 인간이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한 윤리학적 숙고로서, 생명(bios)과 윤리(éthiké)의 합성어로 이루어지며, 생명과학과 건강관리의 도덕적 비전, 결정, 행위, 정책 등을 포함하며, 다학제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윤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더구나 생명윤리의 대상 영역은 자연과 동물 보호 문제, 환경 윤리 등으로까지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생명윤리는 인간에게 살아있는 자연 및 생명의 모든 형태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청하는 정향을 목표로 한다<sup>24</sup>). 따라서 우리는 생명윤리를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숙고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인간과 관련한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숙고하는 인간의 활동’, 즉 인간 생명에 대한 책임, 존중, 존엄성 실현을 그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생명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오랫동안 탐구해온 인간에 대한 연구를 기초 연구 분야 중의 하나로 반드시 필요로 한다. 즉, 생명윤리란 인간 존엄성과 권리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생명윤리는 관련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른 응용 윤리의 영역보다 더욱 시급하게 응답을 요구받고 있다. 배아 연구 문제, 안락사 문제, 유전자 검사 문제,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유보 문제 등등 오늘날 생명윤리의 대답을 요구하는 사태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더욱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 실천적 응답을 정초해주는 기본적인 인간관과 윤리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생명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탐구하는 인간생명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의과학 및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부분적으로만 연구하므로 인간 전체의 관점에서 그 개별 연구 성과들이 해석되어야 하며, 인간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생명윤리는 그 논의의 주체이자 객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생명윤리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초해주는 기본적인 인간관과 윤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인간생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인간 생명과 精氣神

인간 생명에 대하여 플라톤과 데카르트가 주장한 영혼 우위의 이원론적인 입장과 ‘모든 것은 물질적으로 근거지워지며 정신조차도 물질의 승화된 형태라고 여겨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생리학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정신이나 영혼과 사유도 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물리적 생명 현상의 수반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물질 우위의 측면도 있다<sup>25</sup>). 그러나 영혼 우위든 육체 우위든 관계없이, 이러한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을 두 개의 분리된 부분, 즉 물질적 부분과 정신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韓醫의 精氣神論의 입장에서 인간의 전일적인 정체성은 육체-영혼으로 관찰되는 物心兩面의 전일적 실체적 통일체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현곡 윤길영은 한의학의 대상관을 설명하면서 유물론, 유신론, 유심론을 배척하고 음양론적인 태극론에 입각한 全一生命體를 주장하면서 精氣神血의 구성요소적인 차원에서 인

간 생명의 특성을 갈파하였다<sup>26</sup>).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실체적 통일을 이룬 전일생명체로서 존재하며, 인간 생명은 생명력의 偏差的인 發顯相에 의거하여 육체와 영혼의 양면(物心兩面)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정기신론의 전일적인 인간 생명학은 육체와 영혼을 엄격히 분리하고, 양자 중 어느 하나가 우위를 인정하는 인간 이해에 반대한다. 인간은 육체-영혼의 합일체로서 육체와 영혼이 서로 편차적인 상이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者는 모두 인간에게 속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sup>27</sup>). 인간에게 있어 육체와 영혼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생명력의 陰陽論的인 偏差性的인 發顯相인 것이다.

동양의 氣과학, 氣의학자 뿐 아니라,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와 형상을 사물의 내재적 본질 원칙으로 보고, 인간의 영혼을 육체의 형상을 통하여 이해한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이며, 결국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실체적 결합으로 표현된다<sup>28</sup>). 토마스 아퀴나스도 인간은 하나의 실체이며, 인간 안에서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정신의 다양한 면들이 전일적으로 결합된 존재라는 전일성에 대한 마음과 몸의 통일에 대하여 막스셸러는 “생리적인 생명과정과 심적인 생명과정은 존재론적으로 엄밀하게 동일한 것이다. 양자는 단지 현상적으로만 상이할 뿐이다. 그러나 그 둘은 그 경과의 구조 법칙과 리듬에 있어서는 현상적으로도 엄밀하게 동일하다. 심리적 과정이든 생리적 과정이든 양자는 마찬가지로 비기계적이다. 양자는 모두 목적 지향적이며 전체성을 겨냥하여 조정되어 있다. ... 우리가 ‘생리학적’이라든가 ‘심리학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생명과정의 두 측면에 불과하다. ... 모든 생명체는 최종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분자로부터 세포, 조직, 기관을 거쳐 유기체의 전체에 이른다.”라고 하였다<sup>29</sup>). 구아르디니도 인간의 실체를 ‘육체와 영혼의 통일’로 설명한다. 육체와 영혼은 상호간에 관계하여 통일을 이룬다. 그는 인간을 단순한 육체나 혹은 단순한 정신으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한다. 인간에게 현존하는 것은 모두 선천적으로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정신-육체의 상관성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은 똑같이 생동적인 통일성의 두 측면을 형성한다. 구아디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하여 인간 본질의 통일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이처럼 精氣神論에 입각한 육체-영혼의 실체적 통일로서의 인간 생명의 전일성을 고려한다며, 인간의 생명 현상 또는 생명 활동을 오로지 육체적인 생리 현상만으로 또는 반대로 정신적인 의식 현상만으로 환원한 후, 특정한 생리현상 또는 의식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인간 생명의 생명권을 부인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인간생명의 전체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 3. 정신- 육체 가치와 精氣神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의 전일성을 기반으로 하며,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생명도 기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혹자는 ‘지금 현재’ 인간의 정신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인간 생명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피터 싱어 등은 차등의 위치로 판단하여 오로지 ‘지금 현재’의 실제적 정신 능력만을

인간 이해의 중심으로 삼는데, 이는 오늘날 생명윤리에서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精氣神論으로 볼 때, 인간 생명의 구성요소인 육체와 정신은 동일 가치를 가진다. 육체(精)가 기반을 마련하고, 정신(神)이 생명을 통솔하며 이들의 연계를 氣가 담당하고 있다<sup>8)</sup>. 인간 생명의 대표적인 인간의 정신은 실제적 능력이며, 본래적 가능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 존재는 정신 능력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더불어 현대 생명윤리에서 시급히 강조되고 재확인 되어야 할 점은 인간의 육체 생명이 기본 가치를 지닌다는 사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육체는 생명 현상의 음양론적인 편차성의 한 측면이며, 또한 정신이 활동하는 근거는 육체이기 때문이다. 육체를 바탕으로 할 때, 생명과 정신은 서로 본질적으로 동일하면서 작용상의 차이성을 가지며, 이 두 원리는 인간 육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생명적으로 서로 화합하여 생명현상과 정신사유 활동을 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精氣神論인 생명권의 특성이다. 그래서 육체는 모든 지각과 인식과 의욕과 행위의 기반으로, 우리는 육체 생명을 통해서 지각하며 사색하며 세계와 관계를 맺으므로 몸은 결코 의식이나 정신을 단지 표현하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살아있는 표현 현상 그 자체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육체(精), 정신(神)은 氣를 매개로 서로 연계되어 상호영향을 미친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과 의식은 서로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애매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sup>29)</sup>. 인간의 육체는 결코 도구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은 육체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 전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육체 생명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정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 조건이므로, 精氣神論인 입장에서 우리는 육체 생명에 기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극대화하여 인간의 육체 생명에만 기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전일적인 생명성에 어긋난다.

#### 4. 생명의 시작과 발생

발생 과정 중 언제부터 인간 생명의 시작이며, 또 동시에 전일적인 인격체인가? 생명윤리에서 이 물음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날 인간의 발생 과정 초기에 대한 의과학 및 생명과학의 개입 및 개입 가능성이 증대하면서,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인간인가의 물음이 생명윤리의 주요 물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특히 낙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지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인간이 되는 시기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시선의 발생, 착상, 뇌기능의 시작, 태줄 절단, 모체 밖으로의 출생, '이성'적인 정신 능력의 행사 등등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物心兩面으로 관찰되는 전일 생명체를 주장하는 精氣神論인 전일생명론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볼 것이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 개체로서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발생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內經의 兩精相搏 謂之神<sup>10)</sup>으로 잘 나타나며, 인간 배아 생명의 인격 지위에 관한 올바른 근거가 되

는 내용이다. 이로 볼 때, 모체 밖속 나이를 인정하는 한편쪽 고유의 품습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생명간의 차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인간의 초기 생명에게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생명권과 관련해서 그런 유보가 가능할까? 생명권은 다른 권리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생명권은 육체 생명의 기본 가치로서 다른 권리들이 가능할 수 있는 기본 권리이다. 그러므로 생명권 다음의 파생적 권리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와 논의를 통해 차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권은 그 인간의 삶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발생 초기의 인간 생명의 생명권도 성인의 생명권처럼 동일가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 5. 몇가지 시사 문제에 대하여

物心兩面으로 관찰되는 全一生命體를 대상으로 삼는 精氣神의 대상관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이 실체적으로 결합된 전체로 보며, 육체와 영혼 양자 모두의 완전성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인간의 육체-정신의 전일적인 생명력을 경시하는 흐름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육체-정신의 생명이 기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인간 이해가 구체적인 생명윤리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인간 생명과 관련하여 현대 생명과학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 분야이다. 인간 생명학에 기초하여 배아의 인간 지위에 관심을 갖는 생명윤리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결국 배아 상태의 인간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 1월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를 통한 연구까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전일적인 생명론에 기초한 생명윤리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어떤 입장을 취할까? 생명의 발생과 시작에서 살펴본 것처럼 精氣神의 생명론에서는 인간의 육체 생명에 정신과 생명현상 그 자체와 동일한 기본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초기 발생과정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발생 초기의, 배아 상태의 인간을 다른, 육체적으로 '보다 더 큰' 인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배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능태(potentia)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2)</sup>. 어떤 사람들은 인간 배아를 '가능적 인간'이라고 하면서, 인간 배아를 차등의 지위에 두기 때문이다. 순수한 가능태란 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제일질료에 해당된다. 혼합된 가능태는 이미 일정한 것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른 것을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이것은 제이질료에 해당된다. 인간배아는 발생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며, 배아와 인간은 본성적으로 동일한 순수한 가능태를 가지며, 배아

의 현실태 안에 이미 인간의 가능태가 얹혀 있는 것이다. 즉, 兩精相搏하여 神이 깃드는 순간부터 생명력의 구성요소인 精氣神을 기틀로 하는 동일 가치의 생명력을 가진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 배아는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새로운 인간 생명이며,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인격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다른 어느 미지의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정기신의 전일적인 인간 생명에 기초한 생명윤리학은 인간의 생명을 해치며, 인간 생명을 수단화·대상화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한다.

## 2) 이종장기 이식

장기이식의 종류에는 생체장기·사체장기·부분·조직·이종 장기이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장기이식이 시작돼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장기를 줄 수 있는 기증자를 보면 거의 200배 가까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신체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는 장기이식의 성격에 달려 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를 기증한다면 그 장기이식은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장기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장기이식은 착취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종장기 이식이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장기이식의 공급이 적다 보니 인간의 장기와 가장 비슷한 돼지를 이용, 장기를 생산해 이를 이식하는 것이 이종장기 이식인데, 이 이종장기 이식은 인간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유전자 변형동물의 정체성, 유전자 변형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의 문제, 동물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이종장기 이식은 인간 생명의 기본 가치 원칙에 따라 허용 가능하다. 즉 인간의 육체 생명은 기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기 장기부전증 환자를 이종장기이식을 통해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그 허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 생명의 관점에서 이종장기이식이 인간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sup>2)</sup>, 특히 육체의 특정한 부분들, 이를테면 개별 장기들을 인간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해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종이식의 전망 :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고찰”(2001)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개별 장기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2)</sup>. “하나뿐인 인간의 정체성을 인체의 모든 장기가 다 같은 정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기들도 있고, 고유한 기능에 덧붙여 개인의 주관성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강한 상징적 요소들까지 표현하는 장기들도 있다. 또한 뇌나 생식선처럼 그 특별한 기능 때문에 상징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장기들도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경우와 같은 장기들의 이식은 이식 뒤에 수혜자나 그 후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미치게 될 객관적인 영향들 때문에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단순

히 기능적이라 생각되는 장기들과 인간적인 의미가 더욱 강한 장기들에 대한 평가는 특히 그 장기들이 각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종장기 이식을 허용하더라도 인간의 정체성에 보다 더 다가가는 장기들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精氣神의 입장에서 五臟의 장기는 五神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五臟 각각은 개인의 정체성을 주관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장기이식은 예를 들어 말기장기 부전증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 생명의 개체성에 대한 주관적 정체성 확립이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실효성 선택이나의 문제에 귀착되는 사항이다.

## 3) 낙태 - 인공유산

우리나라는 낙태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중국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연간 낙태는 150만~200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낙태가 이렇게 만연한 원인을 꼽는다면, 과거 산아제한 제도,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생명경시풍조, 남아선호사상, 퇴폐문화 확산, 청소년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낙태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태도를 취한다.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찬성론자, 그리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태를 허용하지는 측은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대론자들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면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여성의 이익이 태아 생명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생명 발생과 시작의 연계선에서 생명 연속성의 논거를 고려해 볼 때, 낙태를 쉽게 찬성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출생 직전의 아이와 출생 이후의 아이를 무슨 근거로 구분해서 어느 쪽은 죽어도 되고 어느 쪽은 죽일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가. 精氣神論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해되어서는 안되며, 임신 시기를 막론하고 낙태는 엄연히 하나의 생명에 대한 유린이 분명한 것이다.

단지 낙태의 사회적 입장과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생활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낙태가 분명한 생명의 손상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낙태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항상 이 준엄한 점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시작하여야 한다.

## 4) 자살이 해결책이 아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인기 연예인의 자살 이후로 자살과 우울증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회 지도층의 자살, 미혼 여성들의 낙태 문제와 연계하여 전반적인 생명경시 풍조와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 더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자살과 낙태의 증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입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 이슈로까지 취급되고 있다.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줄기세포, 안락사, 인간복제, 이종장기 이식 등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고도의 기술적인 차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다. 이에 반하여 자살, 낙태 등의 문제는 우리들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생활속에서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자살, 낙태 등에 대하여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자세는 생명의 본질, 발생 등의 문제와 관련 지워지며, 우리들의 인생관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精氣神의 생명론은 생명의 시작을 수정난이 모체에 착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여긴다. 수정난이 착상하는 것으로부터 생명 발생의 육체적인 환경, 조건이 구비되는 것이며, 여기에 영혼이 안식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체의 배속 시간도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네 나이 추산법이다. 자살은 개인의 입장에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직한 일이다. 이렇듯 생명줄을 끊음으로써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형편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살을 하지만, 죽음은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살아서 체험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精氣神論에서 우리의 삶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에서 발린 氣運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죽음 직후에는 살아있을 적에 해 온 것과 같은 버릇으로 생각하고 육체를 가진 듯이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죽더라도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이 주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생각한다. 이를 살아있는 우리는 귀신,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결되기를 바라던 문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된다. 즉,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자살은 결단코 해결책이 아니다. 이 몸 받은 이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주의 氣運에 알맞은 처신법이다. 죽음은 神聖한 과정이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과정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

## 결 론

생명윤리는 인간이 생명을 책임 있게 다루는 인간 존엄성과 권리 문제의 학문 분야이다. 精氣神論의인 입장에서 인간의 전일

적인 정체성은 육체-영혼의 物心兩面의 전일적 실체적 통일체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생명의 전일성을 기반으로 하며,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생명도 기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작과 발생의 물음은 생명윤리의 주요 물음의 하나가 된다. 物心兩面의 全一生命體를 주장하는 精氣神論의인 全一生命論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본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 개체로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발생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內經의 兩精相搏 謂之神으로 잘 나타나며, 인간 배아 생명의 인격 자위에 관한 올바른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精氣神의 입장에서 이종장기 이식은 말기장기 부전증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인간 생명의 개체성에 대한 주관적 정체성 확립이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실효성 선택이나의 문제에 귀착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낙태 문제는 태아도 엄연한 하나의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여성-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자살은 氣의 聚散의 입장으로 볼 때 죽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권복규. 유럽연합의 중기세포연구의 정책,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7(2):247-257, 2004.
2. 홍석영. 생명윤리와 인간학,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7(2):217-231, 2004.
3. Potter, V. R.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in biology and medicine p 14, 1970.
4.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성보사, 1983.
5. 김완희. 동의생리학, 대한동의생리학회편, 1993.
6. Scheler, M. 진교훈 역,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아키넷, 2001.
7. 이경원. 로마노 구아르디니의 인간학: 인격으로서의 인간, 경문사, 1997.
8. 김경철 외 2인. 전신형태 진단의 의의와 활용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6(5):873-880, 2002.
9. 진교훈. 의학적 인간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0. 홍원식. 정교환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